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전시작품.

전북미술의 역사 되짚어 보다

전북도립미술관, '바람이 깨운 풍경展'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에서는 '바람이 깨운 풍경 -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展'을 개최한다. 바람이 깨운 풍경展은 2004년 10월 개관 이후 수집한 1,661점 중에서 사람의 숨결과 전북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72점)을 엄선한 전시이다. 전북미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도도한 힘과

방향을 바람에 비유했고, 관조적인 미감으로 사람살이 풍경을 녹여낸 작품들과 아름다운 전북의 풍경을 구현한 작품들로 맥락화 했다. 전북미술의 가치와 자긍심을 공유하기 위한 기획전이다. 전북미술의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고, 특징과 성향을 파악하면서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다. 전북미술은 예나 지금이나 층이 두텁지는

않지만 탁월함을 보였고, 현대도 선명한 개성과 다양함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전시는 두 개의 주제로 나뉘어 구성했다.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구름에 달가듯 바람 속에 선 사람풍경을 그린 '바람 속의 서다'(1~2전시실)와, 전북의 미술가들이 우리 지역의 자연에서 받은 미감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바람 길을 걷다'(4~5전시실)로 구성했다. 이번 전시의 소장품 미술가는 총 68명이다. /김진성 기자

"고창문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회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고창문학상 시상식·출판기념회 열려 올해의 고창 문학상, 안재운 시인 수상

한 해 동안 고창문학발전에 기여한 문인에게 수여하는 제19회 고창문학상 시상과 고창 문인들의 연간 활동작품을 엮은 제51회 고창문학 출판기념회가 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의 주관으로 최근 고창 목회웨딩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기상 고창군수, 김영호 고창군의회부회장, 기관사회단체장과 지역 문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를 축하했다. 사)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는 이상인 초대지부장을 시작으로 창설됐고, 현재 문인순지부장 및 70여명의 문인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학단체다. 해마다 꽃무릇 시화전시, 문학상 시상, 문학지 발간 등 꾸준한 문화행사를 열고, 고창지역의 문화적 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로 51호를 맞이하는 '고창문학'은 회원들의 시, 수필 등 다수 작품과 꽃무릇 시화전시 공모 우수작 등을 수록 발간해 지역민이 문학의 향기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19회 고창문학상 시상과 제51회 고창문학 출판기념회가 최근 고창 목회웨딩홀에서 열렸다.

미련했다. 이번 제19회 고창문학상 수상자는 '인재운 작가'로 고창에서 출생해 문예사조 신인상(수필), 제3회 마한문학상, 익산예술문화대상 공로상 등 수상했다. 발간시집으로는 '고향', '한페이지의 추억'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문인순 지부장은 "제19회 고창문학상 시상식과 고창문학 제51호 출판기념회를 통해 고창문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회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문학의 향기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나눔과 봉사 기부의 기운을 북돋아 주신 안재운 시인의 수상을 축하드린다"며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좋은 뜻을 펴는 마음이 차곡차곡 담긴 '고창문학'이 군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훌륭한 마음의 양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과거로의 추억여행 함께 떠나요

정읍시립박물관, 사진전 '친구야~ 노오울자, 그때처럼' 개최

정읍시립박물관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시작하는 의미로, 옛 사진에 투영된 정읍 이야기 '친구야~ 노오울자, 그때처럼' 사진전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정읍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8년 두 번의 기획특별전(쌍화차, 민족종교)에 이은 세 번째 전시로 정읍을 주제로 한 사진전이다. 전시는 1980~2000년 사이 정읍 곳곳에서 친구, 형제, 자매들과 뛰어놀던 우리 모습을 담은 사진 50여 점으로 구성됐다.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 없는, 추억이 돼버린 골목 놀이문화(고무줄놀이,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를 사진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정읍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사진전이 누군가에게는 과거로의 추억여행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과거 부모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 외에 연계프로그램으로 사진학 교육과 골목·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시 기간 중 관람객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주는 행사와 전시 사진 속 주인공을 찾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사진의



의미와 잊혀지는 우리 놀이문화의 느껴볼 수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정읍시립박물관은 월요일(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관람과 교육·체험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립박물관으로 문의(539-6792)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손의 도시' 전주의 매력과 품격 담은 핵심공간으로 재탄생

전주시·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 재개관 행사 가자

전주공예품전시관이 '손의 도시' 전주의 매력과 품격을 담아내고, 지역의 공예문화를 선도할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앞서 지난해 수제작 부흥을 기반으로 '손길로 만드는 행복한 문화도시'를 뜻하는 '손의 도시(핸드메이시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공예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왔다. 전주시와 (재)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은 17일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공예 분야 무형문화재와 공예작가,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공예품전시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재개관 행사를

가졌다. 전주한옥마을의 중심인 태조로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오랜 재정비 기간을 거쳐 판매와 전시, 교육, 체험 등이 집약된 수공예 산업 관련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세부적으로는, 연면적 1,084㎡ 규모의 한옥 6동을 판매관과 명품관, 안내관, 전시1관, 전시2관, 체험관, 다목적관 등 7개 공간으로 재구성해 관람객을 맞이하게 된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7시 00분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